

창립일 1967.9.17. | 제59권 7호. 2026.2.15.

* 지난주 강단제목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렘 33:1-3, 뉴 22:4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입례송
- ★ 예배의 부름
- ★ 응답송
- ★ 예배선언
- ★ 신앙고백
- ★ 경배의 찬양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 주기도
- ★ 성시교독

- 오르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설교자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14. 시편 24편 / 인도자와 회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아굽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10)

- 찬송
- 중보의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말씀의 선포
- 봉헌
- 교회소식
- ★ 결단의 찬송

-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 다같이
- (1부) 최칠규 장로 (2부) 이은숙 장로
- 이사야 66:22(구약 1049쪽), 요한계시록 21:1(신약 421쪽) / 인도자
- (1부) 빛이 되신 나의 주 / 시온찬양대 (영상)
- (2부) 노래하라 이스라엘 / 시온찬양대 (현장)
-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 설교자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설교자
-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 파송의 말씀
- ★ 봉헌기도 · 축도

- 설교자
-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최신혜 장로 (2부) 이미자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양은숙 권사 (오후) 임혜미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심한결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유경선 권사

(오후) 임혜연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연합남선교회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연합여전도회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으적성경 으적복음 으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기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 오늘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5층 참사랑홀로 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다음 주 주일(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6.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께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배시간과 현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예배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닥터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줌이나 전회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현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현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현금 등
 - 현금현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현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현당, 장학, 선교현금, RUTC현금을 제외한 현금은 일반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돈 담임목사 : 2.17~18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
2.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근, 양승우, 여명, 황세희)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렘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리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진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렘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친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심현결 목사 010-8206-2024)
 - 강사: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친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강사: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친양대실.
 -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 자전거 티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 강인규)
-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가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행1:1-8)’을 주제로 2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진행됩니다.
- 237화요제자훈련이 2월 24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2026 세계청년리더수련회가 ‘전도특공대(팀16:25-27)’를 주제로 3월 2일(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237새기족현장사역자훈련이 3월 3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초등신학원 및 청소년신학원 2026년 봄학기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담당교역자)
 - 등록기간 : 3월 6일(금)까지. 2) 수업기간 : 3월 7일(토) ~ 5월 30일(토) / 12주간.
 - 등록현금 : 15만원. (재수강 15만원 / 초신예비반 7.5만원 / 청신청강 7.5만원)
 - 등록사이트 : WEEA.KR

2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장학생선발공고(1) / 세계대학수련회(2~4, 덕평 RUTC), 제49차 사랑부멤버십대회(4~6, 덕평 RUTC), 청년새내기수련회(7, 참사랑교회)
2주차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유년, 9~11),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초등, 11~13), 중, 고등(청소년)합숙 2차(9~12)
3주차	장학위원회모임(15) /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17~18)
4주차	상반기 장학금수여식(22) / 237화요제자훈련(24, 덕평 RUTC), 초등합숙 2차(26~28), 멤버십데이(28)

2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여동훈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배승찬 (6층) 양경심 임근일
안내위원	(위원장) 박동영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역사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종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창사랑교회 '식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즣인가단데시기 선헌의 즣인이 되게 하우스서

- (1) 1월 8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뿐만 아니라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야구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양,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리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당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 응답을 주옵소서)

현장을 위한 혁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 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라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1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우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우 구자성 송영희 허경영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준 박업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준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희 박준민 황인선 주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이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우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더 김금남 김복님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준우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중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여인 김 헌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호민수 김준례 안민희 이은희 임영순 전 진 이순덕 김영순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김화권 박희영 김순자 김명철 장유미 박인자 최재경 정향란 김주영 이순근 최아영 이영순 유제숙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신혜선 김나경 김정연 임소순 정민호-이서은 윤순옥 안현희 한영화 조성균-김갑례 정해승-이명식 정예승 여종원 홍명숙 유승환-최아현 박찬열 최일숙 박주은 조현지 조재형 이효숙 양은숙 이민형 최영국-김윤지 임혜연 이이연 김태운 송길호 유영식 정수환 최송화 김소라 김지후-이현주 김현성-이미화 임혜미 이연균 김영희 윤태자 박난순 김승훈-김혜인 김아리 한경숙 김창균-임예진 고진순 여현지 채송아 안선희 박희영 윤차현 방주은 무명5		
십일조	정운돈 최정웅 박범서-김진아 문길순 신혜선 최아영 정세완-박희영 유충현-강공이 정민호-이서은 채송아 이 석 이민형 임경미 김성재-윤태자 박동영 홍경아 임혜연 이선아		
감사헌금	정운돈 최정웅 최신영 박범서-김진아 최아영 김갑례 전 진 강공이 정민호-이서은 양경심 이가예 김애경 박학규 박진수 윤성희 문혜영 정수환 박영인 김현진 방주은 임혜미 김지후-이현주 김태율 조재형 조연희 이은숙 최신혜 박동영-최진희 이계옥 유경형-리중화 나영수 홍경아 최송화 정은숙기죽 청년새내기찬양팀 여전도회식사봉사팀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임민재-지성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정웅 이현규-김수진 안민희 이은희 임영순 강공이 유승범-주은경 윤차현 조현지 정수환 방주은 임혜미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채송아 임혜연		
스리랑카 치유센터	정수환 방주은 정민호-이서은	스리랑카 치유센터(2026년도 합계)	107,000원
현당헌금	정운돈 최정웅 최신영 전정아 임영순 유승범-주은경 조현지 방주은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이효숙 정예승 임혜연		
장학헌금	정운돈 최정웅 김원일-전인숙 안민희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방주은 채송아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전정아 강공이 정수환 방주은 김승훈-김혜인 김아리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 이름이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6. 2. 4. ~ 2026. 2. 10.)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30,615,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20,000원
침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973,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200,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5,000,000엔 (한화 4,322,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침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침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침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침사랑교회
침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침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박은진 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수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 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경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현우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해승 이해준 이현우 이은우 조유연 조웅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체희은 도성웅 김경현 강소영 김유원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 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재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자원 조현우 이재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수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헌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정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순옥</u>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울림파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울림파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울림파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A</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u>강현자</u>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혜원A 김재승 윤순우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관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흥명숙 손가을 손하늘 <u>오신자</u> 나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u>김정엽</u> 김윤태 박숙자 <u>도정호</u> 유경순 도규철 이연근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B</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재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우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우 신지유 <u>장영균</u> <u>송미경</u>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u>이군재</u>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미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정향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합조식 소숙현 합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1-3, 누가복음 22:44

서론 : 기도의 절대적 가치와 영적인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이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불잡아야 할 기도의 비밀과 그 놀라운 응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어린 시절의 깨달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오신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기도원에 이불을 펴놓고 물통 하나 들고 영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만 금식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하루 이틀 같이 금식을 하게 되었다. 그때 옆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린아이가 며칠째 금식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친해져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 너처럼 어린애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금식기도까지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 '저 아주머니가 나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다. 아주머니가 옆에서 우리 어머니와 대화하며 나누는 기도제목을 들어보니 인생의 온갖 풍파와 고통이 기득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충분히 넘어서 수 있는 일들이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계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펫병을 같이 되더라"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금부터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무나 커서 천국에 가기 싫을 정도로 이 땅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성도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거니?"라고 원망한다. 그들에게 직업은 못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기도 좀 하시지, 왜 기도를 안 하고 원망만 하시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법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것을 기도로 찾고 누려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축복의 90% 이상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 덕분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금 겪는 고통, 역시 조상의 영적 대물림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끊고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나의 아버님은 당대 믿음으로 산양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북에서 내려와 사업을 하셨는데, 정직하고 성실해서서 하는 일마다 잘되었다. 그런데 유독 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과의 갈등이 심했다. 어버님이 열심히 사업을 일궈놓으면 삼촌이 와서 자꾸 빼앗아가려 하고 뺏거나 악을 올렸다. 아버님은 이를 분이 아니라 등치도 크고 성격이 '윽'하셨는데, 삼촌은 너무 일찍계셔 구니까 하루는 무도 못하고 삼촌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치셨다. 삼촌은 그것을 멀리도 아버님을 폭력배로 몰아붙이며 몰한계게 만들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태리고 기도원에 가셨다. 아버님은 기도원에서 화장지가 다 없어 절 정도로 눈물 흘리며 일주일 넘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아버님의 꿈을 꾸셨는데, 흑암이 있는데 이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뽑아 들고 흉을 치려 할 때 뒤에서 우러나온 도끼가 날아와 그 흉암을 풀어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참고 기도하라"는 시인을 주신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후 아버님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후 장로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양로원을 세우는 큰 응답을 주셨다. 최근 내 남동생이 150만 사회복지사에 대표되는 회장이 된 것도 아버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성취된 결과라고 믿는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응답 다 해 주신다. 최근 우리 교회의 한 후대가 서울대학교에 학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친구는 고3 학생 기간에도 주요예배, 금요예배 등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제는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교회에 오니'라는 문제를 정도로 예배에 올인했다. 수학 문제도 단 하나만 틀렸다고 하더라. 지금은 홍콩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데, 호텔 조식까지 포기하고 새벽기도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대견하다. 호텔 조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고 기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위기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들어가는 말씀 : 위기 속의 무기, 부르짖는 기도

(1) 예레미야의 소망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하려는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다. "주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것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태종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으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2) 고난과 문제 : 응답을 위한 최고의 기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업적난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권한다.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토록 심각하게 느껴지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여 주신다.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지 등 뒤에서 허약 시원한 바람이 쓰여들어오는 것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평안함이 임하면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실 우리에게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그 고민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염려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불잡으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그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3) 기도의 공동체와 응답의 원리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꼭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꼭 내 자식이 잘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해 보라. 우리 친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을 안에서 한 기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다른 후대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자 우리 전체의 응답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복을 받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은 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레미야를 보라. 그는 40년 동안 눈물을 사역하며 수많은 악속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온갖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

(4) 21세기 대한민국과 크고 은밀한 응답 우리는 지금 기도의 무기 사용을 사용해야 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하신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응답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멎을 보이자 사랑생활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다. 진짜 큰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가 조심스러워진다. 남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시기나 질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는 은밀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성도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 블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친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아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다. 이 은밀한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부어 주신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간절한 부르짖이 모든 저주를 캐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1.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영적 정서의 중요성

(1)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 시기와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활동을 지속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다. 복이스리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 역시 비벨론에 의해 풍진등화의 위기에 처해 멸망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활동은 요시야의 아들 어호아킴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어졌다. 즉, 예루살렘에 비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2) 영적 정세를 분별하지 못한 요시야 왕의 실책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당시 유다에는 요시야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선지자들은 깊었으나 세상의 흐름을 무시한 채 종교적인 강요만 앞세우면서 결국 전도의 문을 닫게 된다.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밝힐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무조건적인 종교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요시야 왕 이후 유다의 주권은 급격히 후퇴했다. 애굽과 비벨론이 번갈아가며 유다의 왕을 세우는 자주적인 역사가 반복되었다. 어호아하스, 어호아킴, 어호아인을 거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우위를 끌하였다. 만일 그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세를 살피며 기도했다면, 비벨론의 통치자로서도 나라는 어느 정도 인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였다. 시드기야 왕은 비벨론 왕에게 물려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이야 했고, 본인 또한 고문을 당한 뒤 두 눈이 뽑힌 채 암살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겪었다.

(4) 성경 역사를 통한 오늘의 적용 정직인들을 포함하여 장차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성경 안에는 국가 경영과 외교, 인생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 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정세를 분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미나는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2.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겠다.

(1) 어린 나이와 감당하기 힘든 소명에 대한 부담감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말주변도 없었다. 그는 "슬프도소이니 주 어호아와 보소서 나는 이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며 울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자기 전에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는 이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해든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기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가 실제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체질, 생활, 고집, 그리고 애집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기문을 통해 몇 대째 내려오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못된 성질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며 내면의 '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한다. 자신의 축하고 더러운 성격이나 병든 영적 상태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다. 성도는 날마다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름을 으로지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저축과 같다. 기도는 영적인 통장에 계속해서 저축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된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평안을 넘어 가정과 기문의 모든 문제에 실질적인 응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도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아무리 큰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나의 개인적인 선택과 이본주의의 버리는 데 있다. 기도가 없는 인본주의적 선택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리는 결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하신 예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되기를 축원한다.

(2) 예레미야의 섭섭함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①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과 섭섭함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절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정작 일은 온갖 힘든 것만 시키신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갑작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를 둘러싼 왕들은 하나님과 악하였고, 40년의 사역기간 동안 단 하루도 휴식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음에도 현실은 이토록 참혹하니 예레미야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침을 수 없는 슬픔을 드는 근본이 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과 원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면 그는 "주께서 지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으나이다"라고 부르짖는다. 단순히 속인 것이 아니라 '크게' 속였다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평강을 주겠다고 좋은 약속을 다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앗수르, 바벨론, 애굽에 의해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륙당하며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 직면한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② 고난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예레미야가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 부족하여 당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성사 하셨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이 없었다면, 한국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과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율며 매달려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준,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 최근 AI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산시장에서 수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게 된 배경에는, 남북 대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축원드린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개인적인 가정 기운, 자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는다. 힐렐루야!

③ 위기의 시대에 '남은 자'는 자리를 놓는 응답(청년수련회 예회) 최근 우리 교회에서 청년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년이 모여 성형을 이루었다. 다른 큰 교회들조차 여러 어려움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응답을 주셨다. 얼마나 많은 청년이 왔는지 식사를 준비한 여전도회에서 백천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응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청년들의 중심이었다. 모인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주인아하고나 통고등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50명,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에서 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교회 속에서도 혼자 봉사하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미움에 차지 않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며 버티고 있는 '남은 자'들이었다. 친사랑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 천제 교회와 세계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각자의 부아를 살리는 '남은 자'이자 '복의 균원'으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릴 것이다.

④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예루살렘의 실상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지겠다고 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 유다는 걸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으나 속은 불신하고 우상숭배로 기득했다. 예레미야 자신도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혼들렸기에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었기에 연약한 예레미야를 불리고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그 한 사람, 그 의인임을 잊지 마라.

⑤ 거짓 선지자들과 점령이들의 거짓 평화마시지 예레미야는 진실한 회개와 바벨론 항복을 통한 생존을 외쳤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며 절대 안 망한다. "평안하다"고 백성들을 속였다. 백성들은 듣기 좋은 거짓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예레미야의 참된 경고는 무시하고 그를 꼬집었다. 임진왜란 전에도 "전쟁 안 일어난다"는 말만 믿다가 처참하게 당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우리는 궁정적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을성이야 한다.

⑥ 민족 전체의 영적 타락상태 이스라엘 민족은 계상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타락해 있었다.

① 사회의 종족적 거짓 : 이스라엘은 사회 전반에 거짓으로 기득 차 있었기에 계상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라진 시대를 매우 싫어하신다. 특히 위정자들이 악자와 거난한 자를 거짓으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이 부패한 현장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②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각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처럼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졌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면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은 자인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올바른 정의인, 경제인, 중직자가 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 턱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것이 복의 균원이 누구는 친된 축복이다.

③ 하나님을 버린 백성 :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탄식하였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빼걸거리는 전도대상자를 보면 전도자가 지치듯,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지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믿음 없이 평계만 대며 하나님과 전도자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삼아주고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양태

하나님께서는 친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외롭게 준비해 두셨다.

① 정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정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신호를 그냥 무심히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지난주 주일낮예배 메시지

(2) 남은 자(Remnant)를 통한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혹은 남은 자로 부르시면 그 삶은 사설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포인트의 인물로 쓰임받아야 한다. ① 남은 자 :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는 자. ② 순례자 : 전제를 돌아보며 현장을 살리는 자이다. ③ 정복자 : 흑암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주역이다. ④ 흘러진 자(다이스포라) : 전 세계로 흘러져 현지에서 주역이 되는 자이다. ⑤ 파수꾼 : 곳곳에서 현장과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키는 자이다. ⑥ 경탐꾼 : 현장의 정보를 정확히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이다. ⑦ 기를 듣는 자(대로) : 그리스도의 것발을 높이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이다. 여기에 '정탐꾼'에 대한 예회 하나님을 들겠다. 내가 해군 복무시절, 독일에서 들어온 고속정 엔진이 고장 난 적이 있다. 독일 기술자가 엔진을 고치려 왔는데, 우리에게 기술을 안 알려주려고 문을 떠 닫아걸고 저기들끼리만 고치고 가버리는 것이다. 우리 기술 상사님이 너무 분해서 문틈으로 보고 물어 공부해서 결국 우리가 엔진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정탐꾼의 자세다. 여러분도 세상 학문과 기술을 배워서 목표를 위해 더 잘 활용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언어를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 회복의 방법은 언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삶이 형통하게 된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악한 것에 붙잡히면 사기와 중독 등 모든 저주가 따라오지만 반대로 한 가지 거룩한 것에 집중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 예배에 성공하고 성가대나 봉사 등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나더러 모든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야 한다. 가장 큰 축복은 24시간 시간은 대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시절, 어머니는 아침에 내가 학교 가기 전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그런데 내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온 가족과 친척,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한참을 기도하였다. 나중에는 너무 오래 기도하시기에 기분이 나빠서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쉴 없는 기도가 오늘 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시간 날 때마다 중얼거리며 기도하라.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남는 진짜 자신이 될 것이다.

(4) 디윗의 가지, 곧 그리스도 네 번째 회복의 방법은 '디윗의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디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와이 되어 지혜롭게 디스리며 세상에서 성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예레미야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적 표현들이 담겨 있다. 독자(렘23:4), 생명의 균원(렘2:13), 치료자(렘8:22), 통치자(렘23:1-6), 새 양약을 세운 그리스도(렘31:31-34),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렘29:11), 시랑의 그리스도(렘31:3), 구속자(렘50:34), 디윗 같은 왕(렘30:9). 이처럼 최고의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아멘.

결론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예레미야 시대 못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정치적 혼란, 미국의 관세 및 경제 정체 변화, 자살생고·고령화, 마약과 도박 중독, 자살 문제, 동성애와 같은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영적 기근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와 후대를 위해 한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선생을 막아 수습소서 : 이 땅에 핵전쟁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수습소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진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다시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2) 교회의 사회적 역할 :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사회와 국가에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빚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렘네트의 부상 : 위기의 시대를 살릴 디니엘, 에스더 같은 렘네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4) 재앙을 막는 파수꾼 : 성도들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참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처럼 땅방울이 땅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매일 체험하는 복된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육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램네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파트)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리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정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이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십아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기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 ⑤ 횡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6)

-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티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 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비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었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